거 름 누 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도 1440-1국제빌딩 301호 ☎02-522-4260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소식지 제1호 2003년 3월 17일

농산업 현황

□ 농산업의 중요성

○ 우리나라 농산업은 지난 30여년간 식량증산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

○ 쌀 등 주요 농작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자재비 절감이 중요

○ 최근 농산업은 농기계 수요 감소, 친환경농업 추천 등으로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있음.

○ DDDA 협상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친환경농업 정착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농자재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농자재비 절감이 중요

- 과다 시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질소 비료의 감축

□ 비료산업의 현황

품목	2001년도	2002년도	비고
화학비료	152만톤(1,172억원)	158만톤(780억원)	
유기질비료	50만톤(175억원)	60만톤(210억원)	

○ 화학비료의 매출은 IMF이후 일시 감소하였으나 최근 대북지원, 원예용 비료 소비 확대 등으로 다소 증가

○ 유기질, 부산물 비료에 대한 정부·농협의 보조지원 사업으로 생산업체 및 생산량이 크게 증가

- 생산업체수 '01. 12월현재:1,003(유기질비료158, 퇴비등 부산물비료 845)

- 생산량 : '90 = 222천톤 → '01 =2,135천톤(9.6배 증가)

○ 화학비료 소비는 환경 친화형 비료소비로 전화되는 추세이며 축산분뇨 퇴비화, 액비화의 확대에 따라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 소비가 크게 확대

○ 화학비료는 175만톤중 154만톤(88%)은 농협중앙회를 통해 계통공급하고 나머지 21만톤은 원예용 비료로 주로 지역 농협이나 비료업체 대리점(700여개)을 통해 공급

- 유기질, 부산물 비료는 전체 판매량의 70%는 농협, 30%는 민간 대리점 또는 생산 업체를 통해 유통

○ 화학비료 수출은 년간 130만톤 수준이나 납사, 염화가리, 인광석등 비료 및 중간재 수입은 계속 증가

□2003년도 비료산업 정책방향

○ 농가의 비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 대책 추진

- '91년부터 비료판매가격 차손 보존 실시

○ 부산물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 퇴비, 부산물 동물비(액) 공정규격 설정
- 음식물 쓰레기로 제조한 퇴비에 대한품질관리 강화 (무상공급, 유통하는 경우도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질소비료등 화학비료 감축 유도

- 농업인의 자율적인 질소질비료 감축추진
- 질소질비료 과다시비지역을 중심으로 토양검사 강화

□ 향후 농정 추진방향

○ 농자재 수급관리계획에 의한 공급제도를 시장원리에 맞게 개편

○ 농자재 공급시책의 효율화

로 농자재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 시책강화 및 제도 개선

△ 시장지향적인 농자재 공급제도 정착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

- 농업기계화 기본 계획, 비료수급계획 수립등 수급관리 근거규정 삭제
- 불량퇴비유통, 폐기물 투기, 축산비료등 부산물비료 품질관리 강화

△ 친환경농업정착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자재 공급 지원시책 강화

- 과다 사용되고 있는 화학비료 사용감축 및 유기질, 부산물비료 사용확대 유도 · 화학비료감축(성분량): '99년 842천톤 → '05년 589천톤 · 유기질비료 지원확대 : '03년 600천톤 → '05년 1,000천톤- 음식물 쓰레기, 산업폐기물 → 축산분뇨 등으로 제조한 부산물비료 품질관리 강화

-· 무상공급시에도 생산업 등록 의무화, 부산물비료 공정규격 세분화

-· 불량퇴비, 폐기물사용 단속강화, 축산퇴비 오염방지 등

△ 비료비 절감 및 적정 시비를 위한 현지 배합공급 체계 구축

-. 품질좋은 완효성 비료, 유기성분이 함유된 화학비료등 신비료 개발 추진

※ 이상은 농림부자료로서 지난 3월 12 일 한국 농어민신문사주체 2003농산업 포럼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우리의 관심사항은 비료관리법의 정 비입니다.

앞으로 업계정비를 위해 농림부에서 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비료관

리법이 개 정되면 무허가 비료 단속등 유통질서확립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협 회에서는 회원사들의 권익을 위하여 더욱 힘을 쏫겠습니다.

이럴수록 업계가 단합이 되어 철저한 품질관리를 함으로서 명실상부한 비료

생산업체로서 대내외 위상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Ⅰ.농협중앙회 농업자재 사업방향

1. 농협자재사업현황

○ '02년 농협의 계통자재 취급규모는15,581억원으로 계통이용률은 60.7%임.

○ 전문성 부족으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각계여론 및 의견은 다음과 같음

<농업인 여론>

- 농업인들의 47.3%는 영농자재 구입할 때 전문기술 부족으로 가장 큰 불편한 점으로 꼽고 있음.

영농자재 구입시 제일 불편한 점					
구분	전문기술 부족	가격	서비스 부족	품질	무응답
비율(%)	47.3	17.8	12.7	3.5	18.8

- 구매사업중 농약, 농기계에 가장 큰불만이 있음. 농약 53%, 농기계 18.8%, 생활물자6%, 시료 43%, 무응답 17.9%

<자재 생산업계 주장 >

○ 신품목 수요창출능력 낮아 시판상 우위정책 불가피, 불리한 계약이 원인

Ⅱ.사업환경 및 자재사업과제

1. 사업환경변화와 전망

○ 경지면적, 농업·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호 가속 → 영농자재시장 위축

○ 농업생산구조의 변화로 인한 다양성
- 전업농, 법인농등 대량구매농가의 출현
- 새롭고 다양한 신자재 수요 증가

○ 농업의 다양한 요구 증가
- 영농자재뿐만 아니라 생활전반의 모든 사업에

대한 수요

- 양질의 제품 과 신속한 서비스 기대
-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간접 참여→ 생산자 마진 감축

농협 참여자재관련업체(6개)					
화학비료	3종복비	유기질비료	농 약	과실봉지	종자
남해화학	제주비료	삼협농산	양일케미칼	농협아그로	종물센타

2. 자재사업의 과제

○ 시장 점유율 40~ 50%로 확대될 때 독과점 업체 견제 가능

<농협의 자재별 시장 점유율>

구분	비료	농 약	농기계	비고
'90	84.5	20.4	18.6	
'95	87.2	13.9	24.3	
'00	92.6	31.0	16.9	
'01	91.2	36.5	16.6	
'02	92.0	40.0	16.9	

○ 농업인 생활편의제공 및 영농자재의 위축에 따라 신사업개발로 사업 다각화 추진

○ 전략적 마케팅과 인력의 전문성 확보 시급
- 유통전담회사 설립을 통한 가격교섭력, 전문성 강화 및 광역판매장 구축

○ 농협 자재관련회사의 경영활성화 필요

Ⅲ.향후 공급제도 개선방안

1. 지역 연합구매사업 추진

가. 도입배경

○ 계통구매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체 구매의 장점을 살리는 새로운 개념의 구매사업 전개
- 추가 약정을 통해 계통구매품의 지역별 구매여건 반영 및 물량리베트제도 도입 필요
- 비계통 구매품목의 구매 불편 해소

나. 사업방향

○ 계통구매품은 시·군지부 주관하에 관내 농협이 연합하여 계통계약업체 와 직접 추가약정체결

○ 비계통품목은 관내 물량을 결집하여 도 단위 현금 계통구매 의뢰 또는 자재 구매 계약

○ 시판상의 농협품목 덤핑 판매 등에 시·군단위로 연합하여 공동 대응
- 판매가격수준 등에 관한 정보교환 대응

○ 공동구매 연합체에 중앙회가 연합구매 특별장려금 지원
- 연합 구매시 비계통 구매품의 간편구매 허용

다. 추천대상품목

○ 1단계 : 농약, PE필름, 퇴비, 유기질비료, 제4종복비 등

○ 2단계 : 1단계 시행결과 평가후 반영

라. 사업명

○ 1형 : ○○지역 연합구매

○ 2형 : 품목조합 연합구매 등

마. 연합구매 주관 사무소 선정

○ 시·군지부 주관하에 지역구매 연합체(또는 품목조합 연합체)를 결성하고 구매 능력이 있는 조합 또는 시·군지부를 연합구매 주관 사무소로 선정
- 시·군단위로 연합 자체구매하여 시·군지부가 기표할 경우 계통구매 로 분류하고 알선한 경우 자체구매 로 분류함.

바. 연합구매방법

계통구매품

○ 관내의 물량을 집결하여 물량을 갖고 특정업체, 특정품목을 집중구매하는 조건 등을 생산업체에 제시하고 추가장려금률 등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 추가 약정 체결
- 추가 장려금은 물량 리베트 개념으로 운용하여 구매 교섭력 제고

○ 계통 구매품의 자체 연합구매는 금지 → 추가약정방식으로 운용

○ 시·군단위로 시판상의 덤핑판매등에 공동 대응하여 농협이 가격주도권 확보(유통 질서 유지)
- 현금할인, 환원사업 방법 품목 결정 등

2. 친환경자재공급 기반 구축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등 정책변화로 농가비료사용량 감소 추세

구 분	'95	'01	'02	'06(P)	비고
평균시비량(kg/ha)	438	343	328	245	
'95대비 증감(%)	-	△21.6	△25.1	△44.1	

가. "흙 살리기 운동"을 "안전·우수 농산물 생산운동"과 연계

○ 제4회 흙의 날 및 제7회 흙살리기 심포지엄 개최(11월)

○ 토양검정경연대회, 푸른들 가꾸기 및 토양 개량제 살포 연시회 등을 통한 연계 활동 강화

나. 친환경자재 공급기반 구축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 토양개량제(석회질) 입상화로 시비 불편 해소

○ 퇴비 정부보조 지속적 확대 추진 :'03년 60만톤 210억원

○ 정밀농업에 맞는 시비체계 구축
- 단순농업기능에서 토양진단등 과학 영농지도 체제로 전환
- 시비처방서에 의한 주문비료, 저인산, 저가리 및 완효성 비료공급 확대
- 토양개선을 위한 친환경자재 취급 품목 다양화
(신토양개량제(이탄, 제오라이트) 키토산, 목초액)

○ 농업 환경변화에 조기 적극 대처로 친환경자재 시장 선점

3. 자재유통센타 설립을 통한 물류 혁신

가. 지역농협의 문제점

○ 조합 기능상 전문성, 기술력 부족문제 발생
- 수요창출이 어렵고 점점 경쟁력 약화되고 있음
- 대형 농기계, 첨단 전문 자재 취급능력 한계

○ 농업위축 한계 사업장 정리대비 광역 판매장 필요

나. 독일의 사례

○ 독일 바이애런주의 협동조합들이 60.6% 출자하여 유통전문회사(주)바이바를 설립, 농업 위축에도 불구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음.

다. 추진경과

○ 평택시와 유통단지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하여 3만평 부지확보 → '02. 12월 부지 매입대금 90억원 지급

○ 자재유통센타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 완료
(한국능률협회 '02. 5~11월)

라. 추진계획

○ '04~'05년 완공을 목표로 "중앙자재 유통센타 건립" 추진
- 영농자재의 물류 혁신 → 새로운 구매사업방식 도입
- '04년중 설계 및 일부시설 착공 계획

※ 이자료 또한 한국농어민신문사 주체 2003농산업 포럼에서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자료 중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한 자료입니다.

비료를 포함한 자재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 듯 합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보조사업이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시행되므로 농협의 움직임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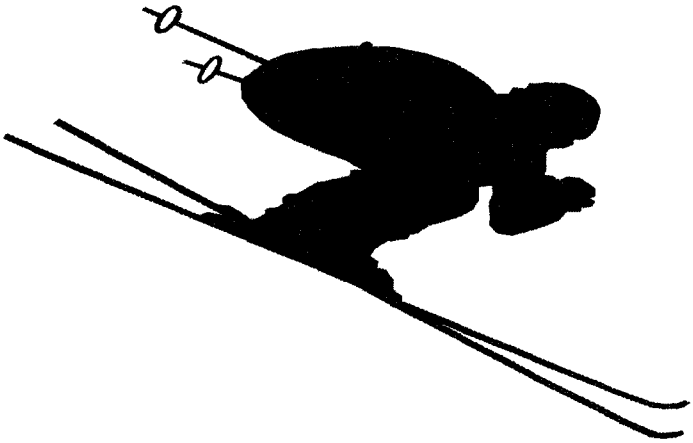
지난 3월12일 한국농어민

신문사 주체 "2003농산업 포럼"이 서울 교육문 화회관 가야금홀에서 열렸었습니다.

이 자리에 신임 농림부 장관을 비롯한 많은 관계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후원은 농림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중앙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약공업협회, 한국비료공업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농자재산업협회로 각각의 분야에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물 비료분야는 그저 초청을 받은 것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지난 3월 3일 사무국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안건은 2003년도 사업계획과 2002년도 결산 감사보고, 정관 변경에 관한 것 이었습니다.

정관 변경에대한 사항은 명칭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관에 표기된 퇴비등의 표현이 부산물비료로 바뀌고 정회원의 자격도 폭넓게 확대 보완되었습니다.

회의 말미에 기타안건에서 각 지역별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되는 사례가 많아 각 사안별로 조사해 발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대표적 사례를 발표하니 참고하시어 각 지역별로 많은 활용있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의 사례는 축산쪽에 지원금과 친환경쪽에 지원금등 여러분야의 지원금을 활용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발표해 주실 사례가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 기

○ 주변여건 : 도내 청정지역으로 군내 비료공장 1개소밖에 없음.

○ 설 립 : 군내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문제로 설치에 필요성을 느껴 보조금 지원으로 설립 관내 축산농가 축산폐수를 수거 처리하고 있음.

○ 지원현황 : 군내 특산품으로 지정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비료지원 시작(배, 사과등 과수) 점점 그 지원 규모가 확대됨으로 지역 생산업체를 보호 하고 지역에서 발생 되는 축산폐수 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비료로 직접 지원하지 않고 축산폐수 처리 자재인 톱밥으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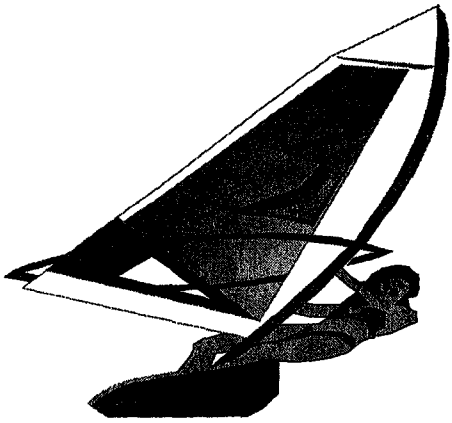
1. 소득개발사업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2002년 2억원을 책정
2. 현지 비료생산업체와 협의 업체에 원가조사표를 제시 하게하여 납품가 2,700원으로 결정(20kg(포당))
3. 과수농가에 지원되는 비료량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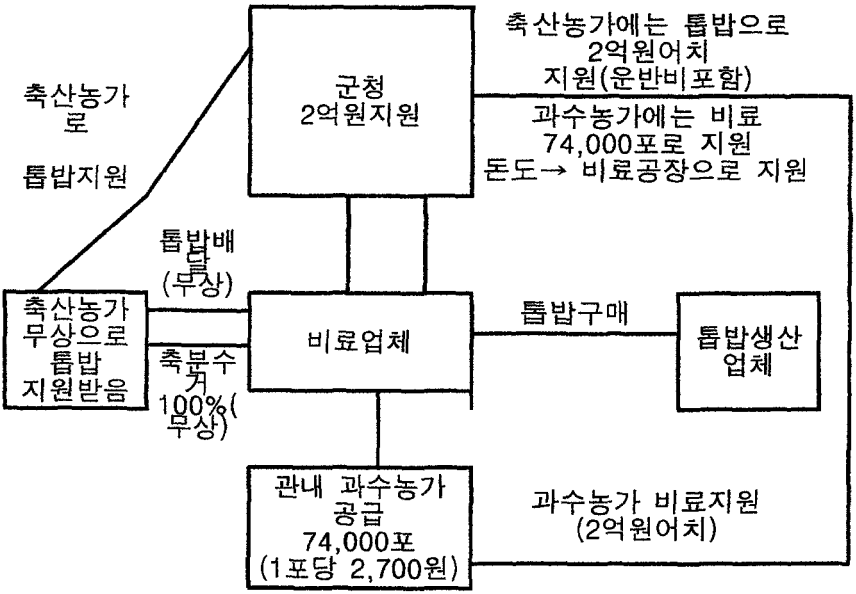
2억원÷2,700원=74,000포

4. 지역비료생산업체 관내 과수농가에 75,000포 납품 납품대금은 보조금으로 군청에서 수령

○ 지원방법

1. 2억원을 톱밥으로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그 톱밥으로 축산폐수를 혼합후 전량 수거하는 조건임.
2. 2억원중 배달 및 수거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반비 등 경비계산 결과 순수톱밥비8,000만원, 제반경비(12,000만원으로 계산)





경 북

- ㅇ 지원현황 : 도 전체를 대상으로 퇴비 50%를 지원
- ㅇ 금 액 : 포대당 1천원
- ㅇ 지원대상 : 포장지
- ㅇ 지원내역: 40%, 군비40%, 비료업체20%
- ㅇ 지원방법 : 도내 50개 비료업체중 8개 업체를 선정하여 공급업체를 지정

-.업체 지정방법

1. 도 내 나환자 농장에서 운영하는 비료공장
2. 영세한 영농조합에서 운

영하는 비료 공장
3. 영세한 단위농협에서 운영하는 비료 공장순으로 선정하여 납품 지정

전 북

o 주변여건 : 군내 비료공장이 4개
o 지원현황 : 처음 96년에 보리장려 정부 시책에 의해 보리밭에 퇴비 보조지원 시작 97년 특산품인 고추농사도 퇴비지원후 비닐하우스 농가→과수농가 순으로 전작물퇴비 50% 지원
o 지원규모 : 1단보당 25포로 한정
o 지원방법
1. 금액이 커지고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 타지역 비료업체도 참여시킴
2. 농민회의 주장으로 타지역 제품까지 확대시켰으나 퇴비의 특성상 관내 축산폐수의 처리문제와 타지역 제품의 유입으로 가축의 전염병 감염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 업체 제품을 쓰도록 유도하고 있음.
3. 현재는 지역특산품 재배지원 명목으로 소득개발사업비 등으로 100% 군비를 책정 지원하고 있고 98년부터 추경 예산에서 본 예산으로 편성 지원 되고 있음.

강 원

o 주변여건 : 청정지역으로 군내비료공장 1개소뿐임.
o 설립당시여건 : 군내 소규모축산농가의 축분처리문제로 설치의 필요성이 절실했음.
- 혐오시설인 관계로 공장부지선정시 큰 어려움을 겪고 현 위치에 설립되는 조건으로 상당부분 주민 요구조건을 수용하며 설립
o 지원현황
1. 친환경농업은 100% 보조 그 외는 1,000원씩 보조
2. 비료보조외에 축산폐수처리문제로 인하여 해마다 5,000만원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음.
3. 그래도 계속 증가하는 운영비 적자문제로 인하여 지역환경보존문제로 지원확대를 요구하고 있음.